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한 중국 내 평가

KIEP 북경사무소

주요내용

- 중국지진국(中国地震局)은 9월 3일 오전 11시 30분 백두산 동남쪽 130km(북위 41.35, 동경 291.11) 지점인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북한의 제6차 핵실험으로 인해 리히터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공식 발표함.
- 중국 외교부는 3일 홈페이지에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행위를 강력히 반대하고 규탄한다는 성명을 게재함.
- 중국인민대학 충양(重陽)금융연구원 장징웨이(张敬伟) 연구원은 중국은 한반도 평화원칙 견지 및 북·중 지정학적 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비핵화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전망함.

1. 이슈 현황

- 중국지진국(中国地震局)은 9월 3일 오전 11시 30분 백두산 동남쪽 130km(북위 41.35, 동경 291.11) 지점인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북한의 제6차 핵실험으로 인해 리히터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공식 발표함.
- 이어 11시 38분에 같은 지점에서 4.6 규모의 지진이 재차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중국환경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동북 접경 및 주변 지역에 대한 방사능 관측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함.
 - 지진은 △지린성 옌지(吉林省延吉) △백두산 츠베이구(池北区) △장춘(长春) △바이산(白山) 등지에서 약 8초 가량 감지되었으나, 9월 3일 오후 10시 기준 방사능 모니터링 결과 모든 수치가 정상범위에 포함되면서 지진으로 인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지난 해 9월 5차 핵실험 이후 1년 만이자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4번째, 미국 트럼프 및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임.

표 1. 북한 핵실험 일시

구분	시기	특이 사항
1차	2006년 10월 9일 오전 10시 35분	플루토늄 원료, 리히터 규모 3.6의 지진을 동반한 1kt 이하 위력
2차	2009년 5월 25일 오전 9시 54분	플루토늄 원료, 리히터 규모 4.5의 지진을 동반한 2~2.4kt 위력
3차	2013년 2월 12일 오전 11시 57분	고농축 우라늄 원료, 리히터 규모 4.9의 지진을 동반한 6~7kt 위력
4차	2016년 1월 6일 오전 10시 30분	처음으로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 6kt 위력
5차	2016년 9월 9일 오전 9시 30분	북한 정권수립 68주년, 리히터 규모 5.0의 지진을 동반한 10 kt 위력
6차	2017년 9월 3일 오전 11시 30분	핵폭탄 소형화 및 위력 실험, 50~70kt 추정

자료원: 『中国强烈谴责朝鲜核试验 印度总理莫迪改组内阁』, 『第一财经』(2017年9月4日)-재정리.

- 한편 북한은 핵실험 진행 후 3시간 만에 조선중앙 TV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공식 발표하였으며, ‘이번 실험이 국가 핵무력 완성의 최종단계 목표를 달성 하는데 매우 의의가 있다’라고 자평함.
-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약 3년 주기로 실험을 재개했으나 4차 핵실험 이후부터는 기간이 단축되고 있음.
- 이번 핵실험 폭발 위력은 1차 핵실험에 비해 50배가 넘으며,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15kt 규모임을 감안하면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2. 원인과 분석

- 중국 외교부는 3일 홈페이지에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행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규탄한다는 성명을 게재함.

- 중국 외교부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핵 비확산 체제 견지, 동북아 평화와 안정 유지는 중국의 단호한 입장이며, 국제사회의 열망’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을 향해 자신만의 이익을 취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함.
- 한편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괄적이고 책임있게 이행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견지함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함.
- 이번 북한의 6차 핵실험은 9월 3일부터 2박 3일간 샤먼(厦门)에서 열리는 ‘제9차 브릭스 정상회의’의 개막 당일 이뤄졌으며, 시진핑 주석은 회의에 참석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합의함.
- 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청샤오허(成晓河) 교수는 북한이 브릭스 정상회의 개막일에 핵실험을 단행한 것은 의도적임을 강조하고, 중국이 북한에 원유공급 중단 등 급진적인 제재를 할 준비가 됐는지 여부를

시험하기 위한 성격이라고 평가함.

■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원 천둥샤오(陈东晓) 원장은 이번 북한의 핵실험으로 평양과 워싱턴 간 긴장이 고조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반도 지역에 우발적 군사 분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함.**


- 또한 금번 실험을 계기로 동북아 지역 안보 및 전략 강화를 위해 사드 등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하면서 실제 배치된다면 중·러 간 전략적 억지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한·중 간 긴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평가함.
- 천 원장은 북핵 문제로 인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정책의 모호성 때문으로 지적하면서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전략적 협력 부족으로 북한이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평가함.

3. 전망과 시사점

■ **중국인민대학 충양(重阳)금융연구원 장징웨이(张敬伟) 연구원은 중국은 한반도 평화원칙 견지 및 북·중 지정학적 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비핵화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전망함.**

- 또한 현재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상당한 책임을 중국에 돌리고 있지만 북한 역시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미국을 향해 치킨게임을 선언한 것으로 직접적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강조함.
- 이에 중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해도 현재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니기 때문에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미·한·러 등 이해관계자들 간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스인홍(时殷弘) 교수는 북한이 외부 압력으로 핵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타 임িং은 지났다고 평가하면서 현재 북한의 핵기술 및 미사일 또한 유효성을 갖췄기 때문에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전망함.**

- 북한이 ICBM 개발에 성공해 미국을 위협하면 미국은 북한의 핵시설과 핵무기만 제거하는 외과수술식(Surgical Strike)의 타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나 중국은 어떤 형식이라도 대북 군사타격은 반대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 기업에 보복하겠다고 언급한 적은 없지만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갈등은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함. 

참고문헌

- 新京报(2017.9.4), "朝鲜核试验引地震 中国后动辐射监测"
- 环保部(2017.9.4), "环保部：朝鲜本次核试目前未对我国环境和公众造成影响"
- 第一财经(2017.9.4), "中国强烈谴责朝鲜核试验 印度总理莫迪改组内阁"
- 中央新闻(2017.9.3), "中国政府强烈谴责朝鲜核试验"
- 中美聚集(2017.9.4), "解决朝鲜问题建立联合陈线"
- 朝鲜半岛论坛(2017.9.4), "朝鲜核试将自己逼进漩涡"

💡 알립니다

- CSF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발간하고 있으며,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에 따릅니다.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CS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